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이혜순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Hea-Shoon Lee(lhs7878@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2011년 5월 9일부터 27일까지 K시에 소재한 2개 중학교 재학생 508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n (%), t-test, ANOVA 및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학교생활 적응은 학년, 성별, 성적, 모 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분화 총점 평균은 102점, 자아존중감 평균은 27.3점, 학교생활 적응 총점 평균은 63.6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 학교생활 적응은 자아분화($r=.54, p<.001$) 및 자아존중감($r=.52, p=.001$)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상자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자아분화 수준의 하위영역에서 가족퇴행, 정서적 단절, 인지·정서적 기능, 가족투사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여), 모 교육수준(대학교이상), 성적(상)이 확인되었으며, 46.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초기 소속집단인 가족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기 학교생활 적응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 시 가정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청소년 | 자아분화 |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 적응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08 adolescents and analyzed using n (%),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16.0 program. **Results:** First, School adjustment was different for grade, gender, level of mother's education, and economics level. Second, Subjects of self-differentiation was the average score 102 points, self-esteem average score 27.3 points and school adjustment average score 63.6 points. Third,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chool adjustment. Fourth,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mily regression, emotional cutoff, recognition·emotional function and family projection in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gender(female), level of mother's education(above university), and grade(high) explained 46.5% of the total variance in school adjustment. **Conclusion:**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were confirmed as having an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We need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manag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hen providing such programs, the family must be included.

■ keyword : | Adolescent | Self-differentiation | Self-esteem | Social Adjustment |

* "이 논문은 2011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seo University, "Dongseo Frontier Project" Research Fund of 2011")

접수번호 : #121119-006

심사완료일 : 2013년 01월 21일

접수일자 : 2012년 11월 19일

교신저자 : 이혜순, e-mail : lhs7878@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심리상태는 가족의 특성[1], 가족 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기인하며[2], 청소년기는 사회적 환경인 학교생활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인간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사랑과 소속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신체적·정서적 문제 및 사회 적응의 문제를 초래한다[3].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교육내용 40.1%, 교육 방법 33.6%, 교사관계는 43.2%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절반이하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4]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우울수준이 증가하고 자살생각 및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및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5] 음주, 흡연 등과 같은 건강위험 행위가 증가한다[6]. 학교생활 적응 영향요인에는 가정환경, 학업성적, 교우관계, 교사만족도[7], 자아분화 수준[8]이 있다.

자아분화는 자율적이며 자기 지시적인 방법(self-directed)으로 미분화된 가족자아군(family ego mass)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충동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는 능력이며 하부요인에는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있다[9].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적응력이 높다[10].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외부세계를 지각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11]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간 정서적 단절이 심하고,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퇴행적 대처를 나타내는 가족퇴행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분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11].

반면 사려성이나 감정의 통제능력을 나타내는 인지·정서적 기능이 분화될수록, 부모가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가족투사가 적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12],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13].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이며[14].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발달과 적응에서 핵심역할을 한다[15].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적응 및 부적응 행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13].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행동 및 적응과 관련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16]. 청소년의 부정적이거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이 중요하다[17]. 소속감에 대한 요구가 만족되면 본인에 대해 자아존중의 요구단계로 발전한다[3].

최근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로 부모 양육태도[2], 부모와 자녀관계[18], 의사소통과 가족기능[7], 자아분화[12], 가족응집성과 자아분화[8], 자아존중감[13]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중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자아분화의 하부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자아분화의 어떤 하부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더 중요한 요인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은 중학생으로 K시에 소재한 2개 중학교(C중학교, K중학교)에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의 작은 효과 크기인(Small effect size) .02, 검정력($1-\beta$)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486명의 대상자가 요구되었으며[19]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508명이다.

자료수집은 2011년 5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K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허락한 2개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재요령과 윤리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즉, 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배부한 545부 중 524부(96.1%)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08부(93.2%)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3.1 자아분화

Bowen[10]의 가족체계이론을 기초로, 제석봉[11]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개발한 자아분화 도구를 사용 하였다. 구성내용은 인지·정서적 기능(7문항), 자아통합(6문항), 가족투사(6문항), 정서적 단절(6문항), 가족퇴행(11문항)으로 총 36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저 36점에서 최고 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 =.92이었다.

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20]가 개발하고 전병재[21]가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2인, 교육학과 교수1인, 중학교 교사 1인에 의해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총 10개 문항, 4점 척도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 도구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신뢰도는 전병재[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6이었다.

3.3 학교생활 적응

박현선[22]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성 내용은 학교흥미(7문항), 학업성취(5문항), 규범준수(10문항)으로 총 22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저 22점에서 최고 8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2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자아존중

감,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및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대상자의 자아분화 총점 평균은 102점, 자아존중감 평균은 27.3점, 학교생활 적응 총점 평균은 63.6점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N=508)

변수	M±SD	가능한 범위	취득한 범위
자아분화 총점	102.0±11.55	36 -144	53 - 130
인자·정서적 기능	21.0±3.68	7-28	7-28
자아통합	14.0±1.98	6-24	10-21
가족투사	18.9±4.22	6-24	6-24
정서적단절	18.3±3.59	6-24	6-24
가족퇴행	29.6±6.06	11-44	16-44
자아존중감	27.3±4.35	10 - 40	13 - 40
학교생활 적응 총점	63.6±9.41	22 - 88	22 - 88
학교흥미	19.1±4.24	7 - 28	7 - 28
학업성취	12.6±2.85	5 - 20	5 - 20
규범준수	31.9±4.55	10 - 40	10 - 40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대상자의 자아분화 수준은 학년(F=4.22, $p=.015$), 성적(F= 10.93, $p<.001$), 같이 살고 있는 가족(F= 5.03, $p=.002$), 부 교육수준(F=5.56, $p=.004$), 모 교육수준(F= 13.07, $p<.001$), 가정 경제수준(F=7.1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자아존중감은 학년(F=11.63, $p<.001$), 성별

($t=3.53$, $p<.001$), 성적(F= 20.20, $p<.001$), 모 교육수준(F= 15.84, $p<.001$), $p=.002$), 가정 경제수준(F=4.60, $p=.0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학교생활 적응은 학년(F=14.81, $p<.001$), 성별($t=-3.37$, $p=.001$), 성적(F= 47.73, $p<.001$), 모 교육수준(F=12.73, $p<.001$), 가정 경제수준(F=4.61, $p=.0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은 자아분화 총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4$, $p<.001$).

대상자 학교생활 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2$, $p=.001$) [표 3].

4.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학년, 성별, 성적,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 교육수준, 가정 경제수준)과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인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서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835 ~.92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정을 통해 잔차분석 결과 1.839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에서 가족퇴행($\beta=.26$, $t=7.78$, $p<.001$), 정서적 단절($\beta=.16$, $t=4.89$, $p<.001$), 인지·정서적 기능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N=508)

변수	M±SD n (%)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M±SD	t/ F (p) Scheffe	M±SD	t/ F (p) Scheffe	M±SD	t/ F (p) Scheffe	
연령	13.9±2.75							
학년	1학년 ¹	168 (33.1)	99.9±10.38	4.22 (.015)	27.3±3.74	11.63 (<.001)	65.4± 9.12 62.5± 8.96 (<.001)	14.81 (<.001)
	2학년 ²	153 (30.1)	101.2±11.40		25.8±3.94			
	3학년 ³	187 (36.8)	103.3±9.17	3)1,2	25.4±4.39	1)2,3	63.4± 7.25 1)2,3	
성별	남	285 (56.1)	101.3±9.70	1.23 (.219)	25.8±3.75	3.53 (<.001)	62.0± 8.72 66.1± 8.48 (.001)	3.37 (.001)
	여	223 (43.9)	102.2±11.06		28.8±4.35			
성적	상 ¹	78 (15.4)	106.6±12.87	10.93 (<.001)	28.9±4.55	20.20 (<.001)	70.2± 9.31 64.2± 9.01 (<.001)	47.73 (<.001)
	중 ²	300 (59.1)	102.0±12.37		27.8±4.08			
	하 ³	130 (25.6)	99.1±11.17	1)2,3	25.4±4.25	1,2)3	58.3± 7.26 1)2)3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부모 ¹	443 (87.2)	102.0±11.55	5.03 (.002) 1,2)3	27.3±3.30	2.36 (.064)	66.6± 9.54	1.28 (.079)
	모 ²	25 (4.9)	108.6±10.49		30.0±4.89		68.3± 8.55	
	부 ³	25 (4.9)	96.9±11.94		26.8±4.42		65.7± 7.86	
	친척 ⁴	15 (3.0)	99.0± 6.60		26.7±3.17		62.8± 6.05	
부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¹	38 (7.5)	97.7±9.96	5.56 (.004)	27.8±5.30	1.47 (.230)	61.8± 6.99	2.46 (.086)
	고등학교 ²	334 (66.1)	101.5±11.73		27.1±4.01		63.3± 9.00	
	대학교 이상 ³	134 (26.3)	104.3±11.21	3,2)1	27.8±4.88		65.1± 10.84	
모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¹	19 (3.8)	96.8± 9.89	13.07 (<.001)	23.2±4.23	15.84 (<.001)	62.2±10.89 64.4± 8.59 (<.001)	12.73 (<.001)
	고등학교 ²	376 (74.6)	102.3±10.30		27.5±3.84			
	대학교 이상 ³	109 (21.6)	103.0±10.37	3,2)1	28.9±4.49	3,2)1	65.7± 8.72 3,2)1	
가정 경제수준	상 ¹	104 (20.5)	104.9±10.66	7.15 (.001)	28.0±4.01	4.60 (.010)	64.3± 9.51 64.3± 9.37 (.010)	4.61 (.010)
	중 ²	276 (54.3)	102.2±11.89		27.5±4.56			
	하 ³	128 (25.2)	99.2±10.92	1)3	26.4±4.03	1)3	61.4± 9.13 1,2)3	

표 3. 대상자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N=508)

변수	자아분화						자아 존중감 r (p)	학교생활 적응			
	총점 r (p)	인지·정서 적 기능 r (p)	자아통합 r (p)	가족투사 r (p)	정서적 단절 r (p)	가족퇴행 r (p)		전체 r (p)	학교흥미 r (p)	학업성취 r (p)	규범 준수 r (p)
자아분화 총점	1										
인자정서 적 기능	.59(<.001)	1									
자아통합	.25(<.001)	.39(<.001)	1								
가족투사	.67(<.001)	.58(<.001)	.35(<.001)	1							
정서적단절	.73(<.001)	.49(<.001)	.21(<.001)	.59(<.001)	1						
가족퇴행	.65(<.001)	.30(<.001)	.18(<.001)	.32(<.001)	.27(<.001)	1					
자아존중감	.41(<.001)	.32(<.001)	.36(<.001)	.32(<.001)	.25(<.001)	.22(<.001)	1				
학교생활 적응 총점	.54(<.001)	.34(<.001)	.29(<.001)	.35(<.001)	.34(<.001)	.39(<.001)	.52(.001)	1			
학교흥미	.47(<.001)	.29(<.001)	.28(<.001)	.26(<.001)	.33(<.001)	.34(<.001)	.58(.001)	.83(<.001)	1		
학업성취	.36(<.001)	.23(<.001)	.26(<.001)	.27(<.001)	.19(<.001)	.25(<.001)	.40(.001)	.75(<.000)	.55(<.001)	1	
규범준수	.46(<.001)	.28(<.001)	.25(<.001)	.30(<.001)	.26(<.001)	.33(<.001)	.27(.001)	.81(<.000)	.44(<.001)	.42(<.001)	1

($\beta=.15$, $t=4.49$, $p<.001$), 가족투사($\beta=.14$, $t=4.43$, $p<.001$)
 과 자아존중감($\beta=.30$, $t=8.19$, $p<.001$),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여)($\beta=.14$, $t=4.55$, $p<.001$), 모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beta=-.13$, $t=-4.39$, $p=.001$), 성적(상)($\beta=-.23$,

$t=-6.82$, $p=.001$) 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교생활 적
 용에 46.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7.70$,
 $p<.001$)[표 4].

표 4.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N=508)

변수	학교생활 적응		
	β	t	p
자아분화			
가족퇴행	.26	7.78	<.001
정서적단절	.16	4.89	<.001
인지정서적 기능	.15	4.49	<.001
가족투사	.14	4.43	<.001
자아존중감	.30	8.19	<.001
성별(여)	.14	4.55	<.001
모교육 수준(대학교 이상)	-.13	-4.39	.001
성적(상)	-.23	-6.82	<.001
Adj. R ² =.465, F=107.70, p<.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 점수 범위는 36~144점이며, 평균 102점으로 중간이상 이었으며, 3학년이 1,2학년 보다 높고, 부모 및 모와 생활하는 경우가 부와 생활하는 경우보다 높고, 부모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란의 연구[23]에서 자아분화 수준은 101.3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아분화는 사고로부터 감정을 분리할 수 있고 타인과 구별되는 확신이나 신념 및 자주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11],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경험의 증가 및 성숙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학년인 3학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24], 아버지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는 가족기능에 차이가 없으나 어머니가 계신 경우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가족기능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25]. 이는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가족구조가 취약한 경우 청소년이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구조적 결손에 따른 사회적 지지 부족 문제를 지원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점수 범위는 10~40점이며, 평균 27.3점으로 중간이상 이었으며, 1학년이 2,3학년 보다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성적 중, 상

위그룹이 하위그룹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26]의 중학생 대상연구에서 1학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기에 높았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진기에 접어들면서 자아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하여[27]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 보다 높으며[26] 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3]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부모 가정인 한부모 가정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28]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덜 받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고[27], 한부모 가정은 한쪽 부모의 상실로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과다와 경제적인 부담이 더해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28]와 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 점수 범위는 22~88점이며, 평균 63.6점으로 중간이상 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연수[29]의 연구에서도 평균 63.2점으로 유사한 적응정도를 나타내었다. Waxman, Huang와 Padron[30]은 수집 자료에서 나온 값을 바탕으로 학교 적응 점수의 상위 25% 이상인 집단을 학교적응을 잘하는 집단으로, 하위 25% 이하인 집단을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연구한 박연수[29]의 연구에서 학교적응 상위집단의 평균은 71.9점, 학교적응 하위집단의 평균은 52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집단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과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분화의 하부영역인 가족퇴행으로 나타났다.

송미경[8]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퇴행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내 문제 상황을 부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가족퇴행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이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한[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Nichols과 Schwartz[9]은 자아분화의 하부요인에서 인지·정서적 기능이 분화되지 못할수록, 가족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을수록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갈등이 심하여 학교생활 적응 문제가 발생한다[10]. 자아분화가 잘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31] 자아분화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3][17], 청소년이 자각하는 자아존중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은 적응 행동과 직접 관련된다고 한 선행연구[16]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17],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부모관계[18]로 부터 영향을 받으며, 학교생활에서의 지지나 인정은 소속감의 요구가 만족되어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김순희[31]는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낮은 학교생활 적응의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어 그 인과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및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는 합리적인 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여), 모 교육수준(대학교 이상), 성적(상)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13]의 연구에서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

준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32] 대학교이상의 모 교육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7],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자아분화의 하부요인 중 가족퇴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분화 수준 및 가족의 퇴행수준을 파악하여 가족퇴행 수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부모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시에 소재한 중학생 508명을 편의의 추출하여 시도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중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도구와 학교생활 적응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하였으나, 도구개발 당시 시행한 내용타당도를 전제로 본 연구를 시행하여 내용타당도 검정을 확인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요인들 중 일부분만을 다룬 제한점이 있다. 이에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문제 유발 예측변인들을 찾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정엽, “간호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38-247, 2006.
- [2] 김미경,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 양선희, 손영희, 백훈정, 원종순, 유재희, 전미양, *기본간호학(4판)*, 현문사, 2009.
- [4]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47163
- [5] K. K. Fitzpatrick, *Parameters of suicidal ideation: efficacy of a brief preventive intervention for suicidal ideation and the courses of suicidal ideation and its correlates*, Ohio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5.
- [6] 민경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7] 이미현,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8] 송미경,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9] M. P. Nichols, and R. C. Schwartz, *Recent Developments in Family Therapy: Integrative Models: in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7th ed.)*, Allyn and Bacon, 2006.
- [10] M. Bowen,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1978.
- [11] 제석봉,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12] D. G. Knauth, E. A. Skowron, and M. Escobar,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adolescent risk behavior: test of the theoretical model," *Nursing Research*, Vol.55, pp.336-345, 2006.
- [13] 임수경,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 [14]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W. H. Freeman, 1967.
- [15] 정문자, 여종일, "아동의 불안과 우울증상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변인", *아동학연구*, 제30권, 제3호, pp.71-83, 2009.
- [16] 황매향, 여태철, "초등학생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교육*, 제15권, 제3호, pp.165-185, 2006.
- [17] 이혜순, 옥지원,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38-446, 2012.
- [18] N. C. Winters, K. Myers, and L. Proud, "Ten-year review of rating scales. III: scales assessing suicidality, cognitive styl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41, pp.1150-1181, 2002.
- [19]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 [20]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1]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권, pp.107-130, 1974.
- [22]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23] 정미란,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4] 이혜순,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가족기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297-303, 2010.
- [25] 김정엽, 조현숙,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정도 및 가족기능과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61-70, 2008.
- [26]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343-349, 2009.

- [27] 김영란, 안민주,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인간이해, 제26권, pp.105-124, 2005.
- [28] 주소희, 조성우,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4호, pp.215-238, 2004.
- [29] 박연수,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0] H. C. Waxman, S. L. Huang, and Y. N. Padron, “Motiv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differences between resilient and non-resilient Latino middle school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19, pp.137-155, 1997.
- [31] 김순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2] 고명숙,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195-202, 2010.

저 자 소 개

이 혜 순(Hea-Shoon Lee)

정희원



- 1988년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학사)
- 1996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07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0년 ~ 현재 :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 청소년, 스트레스, 학교생활 적응, 자아존중감